

신안·무안 갯벌 국립공원 추진...규제 우려한 일부 반대 걸림돌

전남도 타당성 조사 중간보고

전남도가 갯벌의 체계적 보전을 위해 올 상반기 국립공원 지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각종 행위가 제한될 것이라는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다도해해상국립공원에 편입된 섬 주민들이 각종 규제를 둘러싸고 국립공원관리사무소와 마찰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4일 전남도에 따르면 갯벌의 체계적인 보전을 위해 지난 2008년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무안갯벌 37.123㎢, 신안갯벌 144

탐방객 늘어 관리예산 필요

도서지역 주민 민원 증가

주민설명회 거쳐 5월 결론

㎢ 등을 국립공원으로 승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신안갯벌은 지은·팔금·임자도의 25.254㎢를 추가해 169.254㎢를 국립공원으로 할 방침이다. 전남도 동부지역 본부는 최근 이들 갯벌에 대한 국립공원 승격 타당성 조사 중간보고회를 갖고 올

상반기 내 결론을 낼 것으로 알려졌다.

중간보고 결과 갯벌 인근 주민들은 대체로 국립공원 승격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지만, 다도해해상국립공원 내 섬에서의 각종 규제에 대해 주민민원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우려가 높았다.

무안군 환경·해제면 주민 62명 가운데 찬성 43명, 반대 19명, 신안군 압해·비금·도초·하의 등의 주민 78명 가운데 찬성 52명, 반대 26명 등의 비율을 보였다. 찬성 주민들의 상당수는 특별한 행위제한이 없어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달았다.

전남도는 오는 3월까지 자연자원 및 주민의식 추가조사, 2~4월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오는 5월 국립공원 승격에 대해 최종보고를 할 방침이다.

이들 갯벌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 브랜드 가치 향상 등에 따른 지역관광객 증가, 국가 차원의 예산 투자와 전문기관의 관리에 따른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보존이 가능할 것으로 전남도는 내다보고 있다.

무안갯벌 탐방객은 지난 2009년 1만 2000명에서 2014년 7만6000명으로 5배 이

상, 신안은 같은 기간 37만3000명에서 117만3000명으로 2배 이상 각각 증가했다. 방문객이 늘어날수록 관련 시설을 설치할 수밖에 없어 갯벌 보전을 위해서는 국립공원 지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전남도의 판단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 지방재정 부담을 줄이면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갯벌 관리가 가능할 것”이라며 “거기에 브랜드 가치 향상, 지역경제 기여 등이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신안 비금도와 도초도 갯벌 12.32㎢를 해양보호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신안군 비금·도초도 갯벌은 지난 2009년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됐으며 칠게, 버들갯지렁이 등 다양한 저서생물이 서식하고 있다. 또 갈대·갯잔디·칠면초 등의 염생식물 군락이 약4ha(0.04㎢) 정도가 펼쳐져 있다. 법정보호종인 매, 물수리, 황조롱이 등의 물새류가 서식하며 철새의 중간기착지로서 생물다양성이 매우 풍부한 갯벌이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두 손 모으고...동교동 찾은 안 신당 창당을 추진중인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4일 오전 마포구 동교동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사저를 방문해 이희호 여사와 대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선거구 무효’ 혼란 법적 분쟁 사태로 번져

정치신인들 선거구 확정 청구·의정보고 제한 소송

선거 연기 주장도...총선 끝난후 무효소송 가능성도

국회의원 선거구 실종사태가 계속되면서 정치신인들이 국회의 위법 및 책임을 따지거나, 현행 상태로는 선거를 할 수 없다며 선거 금지를 요구하는 법적조치가 잇따르고 있다.

또 신인들이 선거구확정이 끝나 공정한 경쟁을 벌일 수 있을 때까지 현역 의원들의 사실상 선거운동의 의정보고 활동을 제한하도록 요구하는 가치분 신청도 법원에 제출될 예정이다. 나아가 선거구확정이 계속 지연될 경우 오는 4월13일 치러지는 총선을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

까지 나오고 있다.

20대 총선 출마를 준비 중인 새누리당 임정석·정승연·민정심 예비후보는 4일 오전 서울행정법원에 국회를 상대로 부작위 위법을 확인하고 조속한 선거구 확정을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했다.

새누리당 광규택 예비후보는 현역의원 과 정치신인간 선거운동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이 지역 현역 국회의원인 새누리당 유기준 의원을 상대로 ‘의정보고서 발송 및 배포 금지 가치분’ 신청을 부산지방법원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삼석 전 무안군수와 김영집 지역미래연구원장, 서동용 변호사 등은 지난해 12월16일 대법원에 선거실시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대법원은 주심 대법관을 배정하고 법리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이런 소송 제기가 단순히 선거구 확정 지연에 대한 정치신인들의 불만 표시 차원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는 점이다. 법조계에서는 20대 총선이 임박해서 선거구가 확정될 경우 총선이 끝난 뒤 낙선한 정치신인들이 현역의원들과의 현격한 형평성의 문제를 거론하며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

더민주·安 신당, 호남민심 잡기 가열

文, 호남선대위원장 영입 심혈

安, 이희호 여사 비공개 독대

더불어민주당과 ‘안철수 신당’은 4일 야권 주도권 확보를 위해 호남 민심잡기 경쟁을 치열하게 전개했다.

더민주는 인적쇄신 카드로 호남 민심을 되돌리겠다는 각오다. 특히 안 의원 측의 ‘친노후보 특별공천’에 맞서 현역의원이 탈당한 지역구에 새로운 인물을 영입하는 맞춤형 전략을 펴면서 탈당파를 정조준했다. 전남 영입한 김병관 원내 이사회의장을 탈당한 유성업 의원의 전북 정읍에 공천하자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 대표적이다.

여기에 호남 출신 공동선대위원장 카드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박승전 한국은행 총재, 이용훈 전 대법원장, 한

승헌 전 감사원장 등이 난색을 표해 영입 성사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해 보인다.

문 대표 측은 “안철수 신당과의 대결은 결국 새로운 인물 대결로 판가름이 날 것”이라며 “호남에 제대로 된 인적쇄신을 열어나 보여줄 수 있는 자에서 이미 더민주의 우위에서 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를 예방하며 호남 민심잡기에 나섰다. 그는 이날 이 여사와 25분간 만났다. 이 가운데 20분이 사실상 비공개 독대였다. 문 대표가 지난 1일 이 여사를 예방했을 당시 비공개 독대 없이 8분간 대화를 나눈 것과는 대조적이다. 안 의원은 “저희가 새로 만드는 정당에선 김대중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 발전, 그리고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당을 꼭 이루겠다”고 신당 창당에

대한 각오를 밝혔다. 이에 이 여사는 “새 소식을 일거위 위해 수고하는 것 같다”면서 “잘 하시겠조”라고 덕담을 건넸다. 이 여사는 또 “신당이 정권교체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고 안 의원은 소개했다.

안 의원과 결함이 접착되는 김한길 의원은 이날 김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했다. 5일에는 광주를 방문, 5·18 민주묘역을 참배할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비주류의 추가 탈당도 가시권에 접어들었다. 정균환 전 의원이 이날 탈당을 선언한 데 이어 정대철 상임고문은 구 민주계 전직 의원 등 40여명과 함께 집단탈당 결행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8일 이후, 동교동계는 10~15일 사이 탈당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

“탈당 결심한 의원 교섭단체 구성 넘어서”

김한길 의원...“安 신당 합류 대화 통해 맞춰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김한길 의원은 4일 “그 당(더민주)을 떠날 수밖에 없다고 결심한 의원들이 교섭단체를 구성할 만한 수준은 이미 넘어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금 심각하게 (탈당) 고민을 거듭하는 분들도 아주 많다. 그 규모는 예측을 뛰어넘을 수도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이달 내에 교섭단체 구성이 가능하겠느냐”는 질문에 “이달쯤이면 너무 길게 보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는 등 교섭단체 구성에 자신감을 나타냈다. 야권 통합에 대한 질문에 김 의원은

“지금 문재인 지도부에서 통합을 얘기하는 것은 상당히 무망한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안철수 신당으로의 합류 여부에 대해서는 “조금씩 의견들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 더 생각을 해보겠다”고 즉답을 피하면서도 “(열에) 아홉만큼은 공감대를 이뤘다. 약간씩 관점이 다른 부분이 있지만 대화를 통해 맞춰가고 있다”고 밝혔다.

안철수 신당과 다른 신당 세력 간의 통합 논의가 잘 안되고 있다는 질문에 김 의원은 “안 의원은 문이 열려있다고 말하고 있다”며 “우선은 제3세대 신당이 제대로 자리 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제3세대 신당의 조건에 대해



▲따뜻한 진보와 개혁적 보수의 조화 ▲영호남 의원이 같이하는 지역주의 극복 ▲노장정치가 함께 하는 세대통합을 꿈꿨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HNT 하나투어

제 15회 하나투어 결혼 박람회

2016. 1. 23(토) ~ 24(일) 11:00 ~ 19:00

프리미엄 로드샵 광주 총장점
(동구 불로동 96-7)

문의전화 062) 228-1199

최대 140만원 할인 혜택

예약 시, SM면세점 3만원권 선불카드 제공

프리미엄 로드샵
바로가기

하나허니문TM 결혼박람회 추천 상품

<p>클래식 ABW100_KE/OZ/LJ_R 푸켓 6일</p> <p>더 나카 오션뷰 풀빌라(2+2)</p> <p>총상품가 1,749,000원~</p> <p>현지지불 ▶ 가이드+기사경비 포함, 선택경비 있음</p> <p>출발일 : 2016년 1월 ~ 토/일/월요일</p> <p>특 전 : 커플 80만원 할인/데일리 감쪽선물 제공/로맨틱 스냅촬영&오토투어 포함/스파마사지 3회</p>	<p>클래식 AXW100_SQ/KE/QR_H 몰디브 6일</p> <p>하이드웨이 디럭스 워터빌라 워드 풀</p> <p>총상품가 3,763,600원~</p> <p>현지지불 ▶ 몰디브 공항택스(1인 \$25), 현지선택경비</p> <p>출발일 : 2016년 1월 ~ 토/일/월요일</p> <p>특 전 : 30분 커플마사지 1회 무료 제공 30분 스냅촬영 무료 제공(50매 - CD로 증정)</p>
--	---

■ 여행상품 가격포함내역: 유류할증료, 공항이용료, 전정보험료, 관광교통보험료, 관광교통보험료, 운송/숙박/식사요금, 여행자보험료, 현지관광입장료 등 반드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모든 경비 포함됨. 개별여행상품은 미적용. ■ [유류할증료] 유류할증료는 여행상품 가격에 포함되어 있으며, 발원일, 환율 등에 따라 변동 가능합니다. ■ [가이드경비] 가이드경비는 상품에 따라 여행상품가격에 포함 또는 불포함될 수 있으며 불포함시 현지에서 별도로 경비를 지불해야 합니다. ■ [여행사] 여행사 홈페이지 www.hanatour.com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선택경비] 현지에서 고가의 선택에 대한 자유로 선택관광에 참여가능하여 그에 따른 선택경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선택관광 미참여인원 불이익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품표 및 홈페이지 www.hanatour.com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 부동산에 대해 여행상품이 변경되는 경우 여행사의 사전 동의를 받습니다. ■ [관광사] 동북면호 제29004-1993-6 (종로구)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5길 41 하나투어 빌딩 8층(하나투어) ■ 최소 출발인원 10명 기준/호텔 2급호텔 이상 2인 1실/교통편 항공/버스/해리(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고객청탁/불만접수 Tel 1577-1233(ARS 안내번호 0번) ■ 영일 보증보험 22억 1천만원 가입 * 항공권 또는 항공권이 포함된 상품의 상품가격에는 유류할증료와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으며, 유가와 환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상품에 따라 선택경비가 발생할 수 있으며, 선택경비는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지불할 수 있습니다. 선택경비의 금액 및 선택관광 미 선택 시 대체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hanatour.com)를 참조해 주세요. 해외 안전 여행 단계별 국가 지정 위험 1 ● 여행 유약 2 ● 여행 자재 3 ● 철수 권고 4 ● 여행 금지

런던증권거래소 상장기업 | www.HanaTour.com